

국제석유시장 동향과 87년도 油價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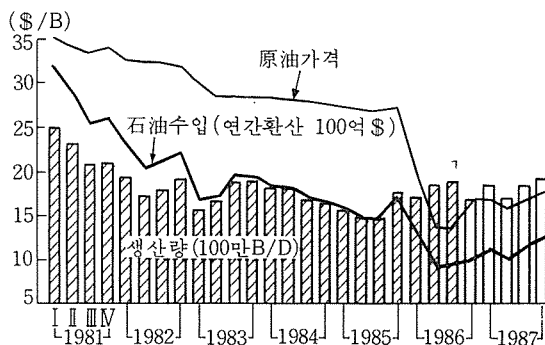
◇ 서로 다른 두가지 견해

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10월 임시총회는 예상대로 9월부터 개시한 감산체제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장기적인 가격전략을 검토할 가격위원회와 국별 생산 할당량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만들 국별생산할당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결론은 다음 총회로 넘기로 하였다. 이 협조감산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한다면 OPEC의 평균가격은 9월의 배럴당 14달러 수준에서 12월에는 18달러 전후로 상승하며, 4 / 4분기의 평균가격은 17달러 정도가 될 것이며, 86년 평균은 16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非 OPEC를 포함한 세계 평균가격은 이보다 약간 낮을 것이다.

그럼 내년의 原油가격은 어느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OPEC의 카르텔이 이미 무너지고, 형태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가격형성력은 완전히 시황 그 자체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 다른 하나는 石油은 본질적으로 특이한 상품이며, 따라서 OPEC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장래에도 상당한 가격형성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非 OPEC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OPEC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 견해이다.

어느 쪽이 옳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견해에 따른 내년도 原油가격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OPEC의 생산량과 석유수입



다.

◇ 시황지배주의의 상징

내년 1 / 4 분기의 수요기를 전제로 하여 OPEC는 현행 1천600만B/D(실질 1천700만B/D)의 국별 생산할당량을 준수하지 않고 무질서한 증산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역시 금년과 같은 상황의 되풀이라는 인상이 강하며, 非OPEC도 증산으로 치달고 석유회사들은 재고방출을 단행할 것이다.

시황은 배럴당 8달러 이하이며, 어쩌면 5달러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어 이번에는 美國을 비롯한 非OPEC 산유국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87년의 평균 原油

가격은 10달러를 상회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우美國만이 수입원유 및 제품에 과징금을 부과하던가, 국내油田의 생산을 자주적으로 감축시킴으로써 세계 시장을 12-13달러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PEC의 회복을 전제

OPEC는 8월초 총회가 끝나기 직전에 84년 10월의 1천600만배럴 생산협정을 되살리는 묘안을 내놓으므로써 합의의 보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일보 전진하여 각가맹국의 인구, 石油수출의존도, 매장량 등을 수량화하고, 전체 상한선만 결정된다면 자동적으로 국별 생산할당량을 결정할 수 있는 야심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진다고 해도 겨울철 수요증가시기에 잠정적으로, 예를 들면 83년 3월의 1천750만배럴 협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내년 OPEC는 금년보다 석유판매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임에 틀림없다. 86년은 확실히 비정상적인 해였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石油판매수입과 수출량은 본래 비례해 왔으나, OPEC는 전년대비 약 10% 증산한데 비해 약 30%의 수익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소나마 시정될 것으로 보이며, OPEC 原油가격은 배럴당 17-18달러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油價를 좌우할 네가지 변수

앞서 설명한 두가지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美國의 석유정책, 이란·이라크 전쟁, 석유회사의 재고정책, 이것들과 관련한「투기」 네가지 변수를 살펴본다.

첫째, 美國의 石油정책은 점차 실질적인 油價하락 방지에 힘을 쓰고 있다. 10월에 시작된 87년 회계년도 부터 전략석유 비축용의 구입을 최대 하루 10만배럴(현재 5만B/D)로 증량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후 가격하락을 반영하여 石油수입이 급증하였으며, 총 국내石油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의존도가 9월에는 45%에 달했다. 제 1차 석유위기 직전 닉슨 정부가

수입석유 급중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을 때의 수입의존도는 30%에도 못미쳤다. 73년의 제 1차 석유위기시조차도 35% 정도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9월에 石油가격의 하락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연말경에 결론이 나올 것이지만,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 이 이상 石油수입 의존도를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제 2의 변수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귀추이다. 최근에는 이란이 전쟁이 이겼을 경우, 사우디등 연간 아랍제국에 군사적 압력을 가해 생산량 급감, 가격회복에 협력케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의 열쇠는 이란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란이 50만이나 100만이나 하는 대규모 지상병력을 전면 투입하여 우선 이라크 남부의 제 2 도시 바스라를 함락시키고, 그 결과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고 이란의 시아派혁명에 협조하는 신정부가 들어서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란이 石油가격 회복에 주도권을 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 장비가 결정적으로 불충분한 이란으로서는 사기가 높은 많은 지원병에만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라크를 지상병력수로 위압하고 후세인 정부가 공포감으로 내부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판단에서라면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더라도 石油가격 폭등으로는 직접적으로

단기 石油수급 전망

(단위 : 100만B/D)

	1986			198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요								
OECD	34.0	35.8	34.9	36.4	34.0	34.5	36.3	35.3
기타	11.7	11.7	11.7	11.8	11.8	11.8	11.8	11.8
공급								
OPEC	19.0	17.0	18.0	18.6	17.2	18.7	19.5	18.5
생산								
기타	28.6	28.3	28.6	28.6	28.6	28.6	28.6	28.6
수급차이	1.9	12.2	0.0	11.0	0.0	1.0	0.0	0.0
재고일수	97	91		94	93	92	90	
OPEC								
평균가격(B/D)	14	17	16	17	16	17	18	17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價格전망이 재고정책을 좌우

제 3의 변수인 수요자의 재고정책은 지금으로는 수요보다도 가격전망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사실, 73-80년의 가격상승기에는 재고가 계속 늘어났으나, 81년 이후에는 가격하락 경향에 맞추어 재고도 계속 감소했다. 단기적으로는 자유세계 전체로 금년 4-6 월기에 실질적으로 하루 150만배럴, 7-9 월기에 100만배럴의 재고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OPEC 회원국 대부분이 가을부터 감산을 단행할 것을 예상하여 앞다투어 증산하고, 석유회사들도 지금 이 가격이 바닥세로 보고 재고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10월초 시점에서 OPEC제국의 민간 육상 재고는 약 25억배럴, 72일분으로 추정된다. 작년 동기의 73일분에 비해 약간 적은 것이며, OPEC가 연말까지 감산을 계속하면 지금까지의 증가분이 상당량 상쇄될 것이다. 따

라서 내년에는 OPEC가 다시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한, 석유회사들은 정책적으로 재고증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 4의 변수인 투기는 이상 세가지 변수와 모두 관련된다. 예를 들면,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石油가격이 오른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그 방향으로 일제히 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물시장의 발달로 “空(Paper)거래” 물량이 실질생산량 보다 20배나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무지할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다.

투기를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투기가 아무런 이유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되는 변수를 사전에 예측해 둬으로써 투기의 규모, 기간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같은 세가지 변수에서도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표)와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다. 87년의 OPEC 原油가격은 평균 17달러, 非OPEC를 포함한 세계평균은 이보다 약간 낮을 것이다. □

〈일본경제신문, 10/28〉

/건/강/상/식/

마늘은 강장식품인가

마늘이 무슨 병이나 좋은 강장식품이라 해서 많이먹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불고기나 철판구이를 먹으러 음식점에 가 봐도 마늘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

확실히 마늘은 여러가지 요리에 넣어먹으면 식욕을 돋운다.

빈 속에 날마늘을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지만, 한두개만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맛을 돋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마늘은 입맛을 돋우는 조미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마늘은 정장작용(整腸作用)을 갖는다. 마늘 속의 알리인과 비타민B₁이 결합된 알리아치민은 기능이 떨어진 장의 운동을 촉진시킨다.

원래 마늘 속에는 세포막 사이에 두고 아리인과 아리테이스란 효소가 들어있다. 마늘을 먹으면 이 세포막

이 파괴되고, 아리인은 분해되어서 아리신이 되어 독특한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마늘을 익히거나 구우면 이러한 냄새가 없어지거나 적어진다. 그렇지만 마늘을 익히거나 구우면 영양분이 파괴되고 강장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억지로 생마늘을 먹는 사람이 있으나, 마늘은 굵거나 삶아 익혀도 마늘이 가진 영양분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늘도 냄새를 내는 효소는 섭씨 60도만 넘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초에 오래담가워도 이 효소는 산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다. 따라서 냄새가 나지 않게 마늘을 먹으려면 초에 담근 마늘깻아찌를 먹거나 익혀 먹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요리에 적당히 섞어 열처리를 하거나 속에 넣어 먹는다면 심한 마늘 냄새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